

구곡순담 100세 잔치… 내달 2일 곡성서 ‘팡파르’

〈구례·곡성·순창·담양〉

‘인생 살아보니, 웃음이 보약’… 장수문화 한마당
교복 퍼레이드·추억 먹거리존 등 프로그램 풍성

전국 대표 장수 지역인 구례·곡성·순창·담양 4개 군이 함께하는 ‘제15회 구곡순담 100세 잔치’와 ‘제3회 구곡순담 장수노인 파크골프·게이트볼대회’가 9월 2일 곡성문화체육관과 동악파크골프장 일원에서 열린다.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에 따르면 올해 100세 잔치는 ‘인생을 살아보

니, 웃음이 보약이로다’를 주제로, 삶의 지혜를 쌓아오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축하하고 웃음이 주는 긍정의 힘을 통해 건강한 노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 회장군인 곡성군이 주관하는 행사로, 장수어르신과 가족, 지역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장수의 기쁨을 나누고 지역 간 우의와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될 전망이다.

행사에는 4개 군별 장수 어르신 12가구(24명) 씩 총 48가구 96명이 가족과 함께 초청되며, 노인회 회원과 주민,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해 장수의 의미를 함께 되새긴다.

100세 잔치는 어르신이 주인공이 되는 참여형 축제로 꾸며진다. 행사의 시작은 교복을 입은 어르신들의 특별한 입장 퍼레이드이다. 교복을 입고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 듯한 어르신들의 모습은 화창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과 웃음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행사에서는 어르신들의 삶을 유쾌하게 풀어낸 마당극과 유명가수의 만담 콘서트도 펼쳐진다. 삶의 희로애락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공연을 통해 어르신과 관람객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기는 화합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장수 어르신들의 인생을 담은 장수 사진 전시와 청춘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 옛날과자와 팝콘을 즐길 수 있는 추억 먹거리존이 마련된다. 보부상이

행사장을 누비며 아이스캐키와 옛날 과자를 나누어 주는 특별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어르신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같은 날 동악파크골프장과 동악축구장에서는 ‘제3회 구곡순담 장수노인 파크골프·게이트볼대회’도 열린다. 어르신들이 파크골프와 게이트볼을 통해 건강한 경쟁과 우정을 나누며 활기찬 노년 문화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는 지난 2003년부터 구례·곡성·순창·담양 4개 군

이 공동 운영하는 행정협의회로, 장수문화 확산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00세 잔치와 장수노인 체육행사는 협의회와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며 전국적인 장수문화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장수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4개 군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한 장수문화 확산과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모범적인 지역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민 기자 hnnews1@gwangnam.co.kr

순천만서 저어새 번식…생태계 건강성 입증 시, 현장 관리·번식지 보호 강화…남해안 최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가 순천만 장구섬에서 남해안 최초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저어새의 번식을 확인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장구섬에서 저어새 동지 15개를 확인했으며, 알을 품거나 새끼를 기르는 저어새의 모습도 포착했다. 앞서 순천만 역간척 복원습지에서 저어새 50여 마리가 관찰, 순천만 갯벌 일원이 저어새의 번식지이자 안정적인 서식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양시는 순천만갯벌이 주변 내륙습지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덕분에 저어새의 번식과 먹이활동, 휴식에 필요한 안정적인 서식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시는 앞으로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장구섬의 저어새 번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번식지 주변의 위협요인을 점검하는 등 신규 번식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순천호 시장은 “장구섬의 저어새 번식은 시민이 지켜낸 순천만의 생태가치를 보여주는 뜻깊은 성과다”며 “순천만 보전·활용계획을 바탕으로 현장 관리를 더욱 촘촘히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신규 서식지를 보전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어새는 전 세계에 약 7700마리만 남아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전 세계 저어새 개체군의 90% 이상이 국내에서 번식하며, 번식지는 주로 서해안에 집중됐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복원습지에서 저어새 무리가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청

여수, 운수종사자 쉼터 정식 개소 휴식·복지 여건 조성…서비스 향상 기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가 지역 택시 운수종사자 등 이동노동자를 위해 조성한 쉼터가 정식 개소했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442㎡ 규모로 총 사업비 31억7000만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내부에는 휴게실과 사무실, 교육실 등을 갖췄으며, 휴게실에는 운동기구와 안마기기를 설치해 휴식과 체력 증진, 종사자 간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착공을 시작한 뒤 올해 2월 말 준공을 했다. 이후 3월 개인·법인택시 사무실 이전을 완료하고 4월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쳤다.

하지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으로 임시 운영하다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현판식을 열고 택시 운수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판식에는 서영학 시장을 비롯한 택시 운수종사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쉼터 정식 개소로,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물론 보다 안전하고 친절한 교통서비스 제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는 최근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에서 서영학 시장을 비롯한 택시 운수종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는 제7회 섬의 날(8월 8일)을 기념해 섬진강과 바다가 만나는 풍경 속에서 자연과 휴식,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광양 대표 해양관광지 ‘배알도 섬 정원’을 추천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청

광양 ‘배알도’, 섬진강·바다 품은 힐링 명소 ‘주목’

제7회 섬의 날(8월 8일)을 맞아 섬진강과 바다가 만나는 풍경 속에서 자연과 휴식,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광양 대표 해양관광지 ‘배알도 섬 정원’이 주목받고 있다.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에 따르면 배알도는 면적 0.8ha, 높이 25m의 아담한 섬이다. 망덕산을 향해 절을 올리는 듯한 형상에서 이름이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550리를 씹 없이 흐른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 자리한 배알도는 강과 바다가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을 품고 있다. 여기에 산책과 전망, 체험 콘텐츠가 더해지면서 광양의 대표적인 해양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다.

배알도는 ‘배알도 섬 정원’으로 새롭게 조성돼 별해는다리과 해맞이다리를 통해 망덕포구와 배알도수변공원을 연결한다. 두 해상보도교는 섬진강과 바다, 포구와 수변공원을 잇는 관광 동선

섬진강 하구·광양만 한눈에…노을·야경 빛는 낭만
별해는다리·스카이 체럼부터 문학·미식까지 ‘다채’

으로 배알도 일대를 걸어서 둘러볼 수 있도록 한다.

섬 곳곳에는 산책로와 전망 공간, 해운정 등이 조성돼 있다. 정상에 오르면 섬진강 하구와 광양만, 하동 일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소나무 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과 은은한 솔향도 배알도의 매력이다.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강과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걸을 수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은 물론 조용한 휴식을 원하는 방문객에게도 어울린다.

특히 배알도의 풍경은 해 질 무렵부터 더욱 아름다워진다.

붉게 물든 노을이 섬진강 하구와 바다를 감싸고, 해가 지면 해상보도교와 해안선을 따라 불빛이 켜지면서 낮과는 또

다른 야경을 연출한다.

주변 관광자원도 빼놓을 수 없다. 망덕포구에서는 운동주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지켜낸 정병욱 가족을 둘러보며 문학과 역사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배알도수변공원에서는 모래와 흙길은 맨발로 걷는 여가를 즐길 수 있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쉬어가는 여행도 가능하다.

체험 콘텐츠도 다양하다.

‘섬진강별빛스카이’에서는 광양만을 가로지르는 공중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배알도별빛야영장에서는 섬과 바다, 야경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숙박 체험이 가능하다.

망덕포구의 전어와 재첩요리 등 지역

먹거리도 여행의 즐거움을 더한다. 자연경관과 체험, 휴식과 미식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배알도 일대가 광양만권 해양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배알도는 섬진강이 긴 여정을 마치고 바다와 만나는 곳이자 강과 바다, 포구와 수변, 자연과 사람을 잇는 공간”이라며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사색하고 쉬어갈 수 있는 관광지”라고 말했다. 이어 “제7회 섬의 날을 맞아 자연과 인문, 체험과 휴식, 노을과 야경, 미식과 숙박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배알도에서 특별한 여름 여행을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5일 오후 5시부터 배알도수변공원에서는 ‘항꾸레 행복한 따스리 광양’ 행사가 열린다. 음악과 문화공연 등이 마련돼 한여름 저녁 배알도의 풍경과 함께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ikjin@

고흥,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완료

주민 안전 신속 대응책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각종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을 완료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 발생 시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접수하고 전파하는 것은 물론, 초기대응부터 상황 관리, 보고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소방, 경찰, 해양경찰, 기초자치단체가 연계해 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기반으로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대응이 가능해졌다.

군은 그동안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한 상황 전파와 보고 체계, 대응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사항을 반영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새롭게 구축된 재난안전상황실은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 체계를 갖춰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은 물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안부 배달’ 강진, 폭염 취약가구 지원

우체국 협력…정기 방문 등 복지안전망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고 여름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안부살림 우편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안부살림 우편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6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형 개발 지원사업’으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고독사 위험이 있거나 이혼·고립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위기가구 100가구다. 지난해 70가구에서 30가구를 늘려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강진우체국 집배원은 대상 가구를 월 2회 정기적으로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한다. 방문 과정에서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군 담당자에게 즉시 알리고,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대상 가구에 전달하는 우편물에 폭염 행동요령 안내문을 함께 넣어 물을 자주 마시기,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도움 요청하기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